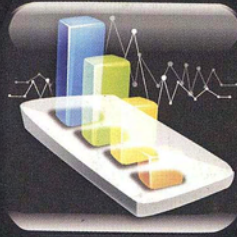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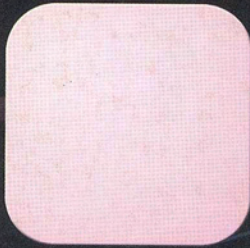


2010 Vol1. 春



경
○

기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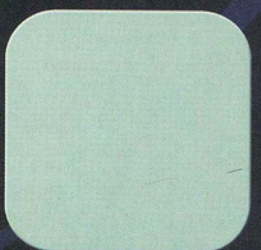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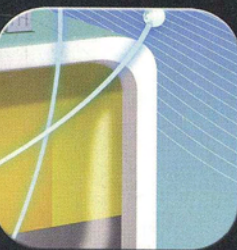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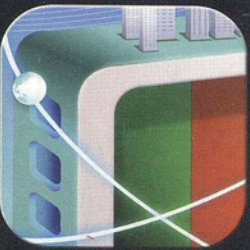
화

스
르

겨

차
스

기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CONTENTS

- 02 | 여는 글 경기문화의 보물을 찾아 소중히 담겠습니다
- 04 | 문화원 길라잡이 '회원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천문화원
- 12 | '지역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용인문화원
- 19 |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 종합계획안' 마련을 위한 경기·인천지역 토론회
- 22 | 기전문화를 찾아서 경기유학의 탐색과 문화원의 역할
- 27 | 문화돌보기 통계로 보는 경기도 문화원
- 32 | 31色 문화원 정월대보름, 3·1절 기념행사 스케치
- 40 | 봄 축제의 향연 이천 '산수유축제'
- 44 | 서평 씨티노믹스
- 46 | 문화캘린더 경기도 문화원 봄 소식





경기문화의 보물을 찾아
소중히 담겠습니다

휴대폰의 통화 기능에 인터넷까지 자유자재로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새로운 사회·문화적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의 열풍은 90년대 인터넷 출현에 이어 또다시 우리 생활에 많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컴퓨터가 발달수록 종이 사용량이 늘어난다거나 온라인 모임이 많아지는 반면 그에 상응하여 오프라인 모임 또한 활발해지고 있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간의 공유와 교류를 본질로 하는 문화는 유·무형의 소통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기도지회는 디지털화 되어가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아날로그적인 따뜻한 소통의 매개를 『경기문화즐거찾기』를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무릇 소식지가 힘을 얻으려면 확실한 컨셉과 충실한 내용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간 『경기문화즐거찾기』는 사람이 내음이 풍기는 부드러운 소식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31개 경기도 시·군 문화원의 활발한 활동이 세상 곳곳에 전파되고, 보물처럼 쌓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이 모세혈관이라면 경기도지회는 동맥이며, 심장인 문화원연합회로 피를 모아주고 다시 심장으로 새로운 피를 받아 지방문화원에 공급하는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2010년에는 보다 더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우리의 국악을 체험케 하는 순회공연을 포천, 부천, 김포, 의왕, 이천 등 5개 시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실과 공동으로 '경기문화상징 발굴을 위한 토론회', '경기유학 연구사업', '미등록 무형문화재 발굴 사업' 등을 진행하여 경기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사업 또한 시·군 문화원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기향토사학 제15집 발간과 제8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를 보다 내실화 할 것입니다. 또한 11월에는 문화가족이 모두 모여 경기도 문화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는 '경기문화가족 워크숍'을 갖을 예정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경기문화즐거찾기》가 경기도지회와 31개 시·군 문화원의 실천들이 큰 물결이 되어 다른 지역사회에 전달되어,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누구나 차별 없이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 혜택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더 다양한 계층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문화정보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천문화원!**

글머리에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지역주민들이 제발로 문화원을 찾아와서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일은 극히 드문 경우에 속한다. 문화원 회원의 역할이란 것이 대부분 별로 하는 일 없이 회비나 내야 하는 별 매력 없는 자리인 탓이다. 그런데 우리 문화원의 경우는 수 년전부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주로 젊은 주부층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문화원을 찾아와서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로부터 '모범적인 회원제 운영사례'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원고청탁서를 받고는 한동안 망서렸었다. 전국의 지방문화원들이 하나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마다 자긍심을 갖고, 자신들의 고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중뿔난 자기 자랑이나 늘어놓는 꼴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체험한 우리들의 경험이 다른 문화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필을 수락하게 되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 진흥이라는 사업목표를 두고 일하고 있는 각 지방문화원들은 소속회원들이 설립 및 운영의 기본이며 주체이다. 건축물로 친다면 주춧돌인 셈이어서 회원조직이 튼튼하지 않으면 문화원 운영체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회원의 숫자는 되도록 많을수록 좋다. 문화원이 지역 주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전국 245개 지방문화원들이 저마다 형편은 조금씩 달라도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운영비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액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운영비로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는 일부 보조금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를 어떤 방법으로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문화원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한 그중 합리적이며 권장할만한 방법이 다수 회원확보와 회원관리인 것이다.

회원 1,000명, 월 8백만원 회비수입 목표 달성

이천문화원은 지난 해 상반기에 그동안 목표로 삼았던 회원 1000명 확보를 달성했다. 그런데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수월한 것이 아니었다.

이천문화원은 1963년에 설립되어 1965년 5월에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60년대와 70년대는 다른 대부분의 문화원들이 그러했듯 미국공보원(U.S.I.S)과 제휴해서 홍보영화상영 같은 농촌계몽운동에 주력했다. 당시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모두 무보수 봉사활동으로 일했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천문화원의 경우는 향토사료 조사연구와 자료집 발간사업에 주력함으로써, 문화원 고유의 사업영역을 넓히면서 지역사회로 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게 된다. 1987년부터 열기 시작한 이천도자기축제를 전국 최초의 문화관광부 최우수축제로 성장 발전 시킨 일은 우리 문화원의 자랑이다. 1998년부터는 조형예술 분야의 국제 행사인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직접 기획하여 9년 동안 이끌어 왔다.

2003년에 현 이상구 원장이 취임하면서, 회원 1,000명 확보를 목표로 한

회원배가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당시 이천문화원은 사업활동 면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편이었지만, 운영비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해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늘 뾰족한 해결책없이 그냥 넘어가는 형편이었다. 자체예산 확보와 운영체제 강화를 통한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 회원확보 운동이었다.

그런데 이름만 걸어놓는다고 해서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원이 제대로 회원자격을 갖추려면 우선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 이천문화원의 경우 회원종류 및 회비는 다음과 같다.



- 이사 및 감사 - 월회비 50,000원
- 정회원 - 가입비 30,000원, 월회비 15,000원
- 일반회원 - 가입비 10,000원, 월회비 5,000원
- 특별회원 - 월회비 20,000원

회원확보운동을 시작하기 전인 2002년말 이천문화원의 회원 총수는 461명이었고 그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이름만 걸어놓은 회원들이었다. 그후 회원 1000명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꼬박 7년이란 세월이 소요되었다. 원

연도별 회원 변동 상황

연도별	임원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계	년회비수입 (단위:천원)	비고
2000년도	19	35	242	2	298	20,338	
2001년도	25	46	319	2	392	21,135	
2002년도	26	49	382	4	461	28,623	
2003년도	35	209	304	12	560	51,783	CMS제도 도입
2004년도	34	195	369	12	610	61,974	
2005년도	39	227	379	11	656	67,239	
2006년도	38	243	467	12	760	69,660	
2007년도	34	274	540	14	862	80,000	
2008년도	39	288	619	15	961	88,725	
2009년도	39	291	660	16	1,006	91,180	

장님의 주요업무가 양복 안주머니 속에 두둑한 입회원서 몽치들을 넣고 다니면서 매일처럼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고, 지속적으로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회원관리를 위해 다같이 정성을 기울인 결과였다.

회비수납과 회원관리

① CMS 운영관리

회원 수효가 크게 불어나게 되면 회비수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과거에는 회원들이 직접 문화원을 찾거나 은행에 가서 통장으로 회비를 입금하는 방법뿐이었다. 그런데 일년이면 한 두 번 모임이 있을까 말까한 문화원 회원들의 경우, 매월 빠짐없이 회비를 내는 일이 번거로울 수 밖에 없다. 조금만 소홀하면 금방 미납회비가 쌓이고, 미납액수가 커지다 보면 결국은 회원탈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로용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역시 일일이 우편발송을 해야 하고 납부하는 사람도 은행을 찾아야 하니 번거롭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보다 편리한 방법을 모색한 결과가 회비 자동납부가 가능한 CMS (Cash



Management Service)제도였다. 200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CMS에 현재 전체 회원 중 70% 정도가 가입해 있으며, 이를 통해 자동납부 되는 회비수입은 월 600~700만원 선이다.

② 주말문화탐방과 해외문화탐방

다수회원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회원관리다. 이천문화원의 경우도 매년 기존회원의 10% 정도가 이런 저런 이유로 탈퇴하고 있다. 신규회원의 지속적인 확보와 함께, 기존회원들도 문화원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천의 경우 회원들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주말문화탐방 프로그램이다.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주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내느냐 하는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였다. 주말문화탐방은 문화원 회원 및 가족들이 함께 월1회 꼴로 주말을 이용해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최소한의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지방을 방문하여 그곳의 문화재와 명소, 박물관

관같은 시설들을 답사하고, 서울·수원같은 대도시로 공연물 단체관람을 가기도 한다.

주말문화탐방은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하고 매년 10회 정도씩 지금까지 44회를 실시했다. 참가인원은 관광버스 두 대 정원인 90명인데, 이 행사는 문자 메시지로 모집광고가 나가면 불과 두, 세시간이면 금방 인원이 찰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신청자가 넘치는데도 정원을 버스 두 대로 제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인원이 너무 많다면 식사문제를 비롯해서 진행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방문지에 대한 정보나 일정표 작성, 현지 해설사 섭외 등은 방문지 문화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이것이 문화원이 갖는 장점이기도 하다.

연1회 정도는 회원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다. 자녀들이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주로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며,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알찬 학습여행이 되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 비용부담을 줄이려다 보니 행선지는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을 주로 찾게 되고, 비싼 비행기보다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요즈음 흔한 것이 문화탐방이며 학습



여행이다. 답사자료를 만드는 일부터 해설사 선정, 식사, 차량이동 시간 활용 등 전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탐방은 역시 다르다는 평가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

③ 기타 행사 및 회원관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이천문화학교는 199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매년 서양화·도예교실·사물놀이·생활차다레·판소리·민요·서예교실·일본어·오카리나 등 20개 정도의 강좌를 진행한다. 월 수강료는 회원 1만원, 비회원 2만원으로 차등을 두고 있으며, 회원 가족들도 똑같은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젊은 주부층들은 문화학교 수강을 위해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밖에도 회원들에게는 새해맞이행사,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설봉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원행사에 우선 초대되며, 연2회 발간의 설봉문화지나 문화원소식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각종 문화관련 소식과 정보를 제공받기도 한다. 회원들의 생일을 잘 챙겨 두었다가 꽃다발이나 생일카드를 보내는 일도 회원관리업무 중에 하나다. 생일축하 전화를 비롯해서 회원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일은 원장님



의 몫이다.
회원 수요가 1천명이 넘다보니 직원들의 업무량도 비례해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안내장 하나를 보내더라도 발송작업에만 적잖은 시간과 품을 들여야 한다. 회원관리 업무만을 담당할 전담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자체예산 확보를 위해서, 운영체제 보강을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서 문화원 회원 다수 확보는 꼭 필요하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회원들이 문화원을 통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신뢰성만 심어줄 수 있다면 크게 어려울 것도 없다. 회원 확보와 운영체제 강화를 통한 문화원 체질 개선의 문제는 이제부터라도 전국의 문화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과제다.



이 인 수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향토사학자
현)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지역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용인문화원

용인문화원은 6.25 동란 직후인 1954년 4월,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해 미국 워싱턴주립대 플리드 슈머 교수가 봉사단을 결성하여 한국정부와 UN 한국재건단의 후원을 받아 용인에서 의료지원, 주택복구 등 난민구호사업을 시작한 것이 탄생의 모태가 되었다. 용인문화원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설립된 문화원이자 경기도에서는 첫 번째 문화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지역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전통문화의 교류 및 사회교육 활동 등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용인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문화 창달의 역사를 이끌어왔다. 때문에 용인지역의 독자적인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오면서 문화관광부로 부터 우수 문화원이라는 자랑스런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용인시는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수도권 중심도시로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라는 이점으로 에버랜드, 골프장 등 각종 위락시설이 집중되고 있어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구의 80%가 외지에서 유입되었다는 점과 농업 중심의 동부지역과 도시화된 서부지역의 정서적 괴리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용인이라는 지역사회의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오랫동안 지역사회 정신문화의 중심이 되어온 문화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원의 기능도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운영해 오던 문화원 자체 사업과 전통문화 연구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

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래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지역문화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절실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문화원은 지역 문화자산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인식하되 그 안에 안주하기 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타 지역 문화에 대한 열린 소통과 교류의 자세로 좋은 아이টে를 수용하고 이를 지역문화 발전의 원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용인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인 몇 가지 사업을 소개한다.

연간 10,000명의 시민이 참가하는 '용인문화유적' 투어

앞에서도 언급했듯 용인시민의 80% 가량이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이다. 용인의 사회나 문화정서에 익숙하지 못한 그들에게 용인의 역사와 문화, 자연 및 인문환경을 소개함으로써 내 고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시민으로서의 향토애와 자



긍심을 느끼게 한다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용인 문화유적 투어>이다.

특히 수지구 및 기흥구 지역에 새로 유입된 주민들에게 산자

수려한 용인의 자연과 환경친화적인 도·농의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오랫동안 난개발 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일소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사업은 1999년 전국 최초로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바로알기 사업으로 시작하여 2009년 현재 12년째를 맞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매년 10,0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본 문화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이다.

2010년 현재 연간 사업예산 총액은 1억2천5백만원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200여회(차량 25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방법은 평일(월-금)에는 단체별로 참가 신청을 받아 투어를 실시하고 토요일에는 개인별 참가자를 대상으로 관내 3개 구청에 집결하여 투어를 실시한다.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며 입장료와 중식을 제공하고 각 차량에는 문화원 가이드가 동승하여 안내 및 해설을 담당하고 있다.

투어 코스는 북부지역, 남부지역, 서부지역, 동부지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단체인 경우는 참가자가 원하는 코스를 투어하게 되고 개인인 경우는 매주 로테이션으로 4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스	유적지
1코스 북부지역	정몽주선생 묘소 등산박물관 (or 총렬서원) 왕산리 고인돌 남구만선생 묘소 (or 용인자연휴양림) 호암미술관
2코스 남부지역	용인향토사료관 서리백자요지 처인성 한국상업사박물관 세종옛돌박물관 양지향교

코스	유적지
3코스 서부지역	심곡서원(조광조선생 묘소) 민영환선생 묘소 용인향교 경기도박물관 용인문화유적전시관 단국대 석주선 기념 박물관
4코스 동부지역	와우정사 농촌테마파크(우리랜드) 세종옛돌박물관 허균 및 허씨5문장 묘소 미평리 약사여래

용인 600년 기념사업회 운영

1414년(태종 14년) 8월 21일을 기하여 고려시대의 행정구역 명칭이던 용구현(龍駒縣)과 처인현(處仁縣)을 병합하고 용구의 '용'자와 처인의 '인'자를 합쳐 "용인(龍仁)"이라 칭하게 되었는데, 오는 2014년이면 지명이 탄생한지 600년을 맞게 된다. 이에 본 문화원에서는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그 의미를 살리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용인 600년 기념사업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 창조적 문화유산을 기념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용인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항구적인 문화발전의 초석을 다진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술한 세월의 흐름 속에 선조들의 삶이 이어졌고 그와 함께 역사도 쌓여 왔다. 또한 앞으로 수없이 해와 달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비록 한 지역의 역사이기는 하나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는 전환점에 새삼 의미를 두는 것은 과거를 재조명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이든 그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주지의 단순한 개념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와 애착을 갖게 마련인 것은 인지상정이다. 마찬가지로 용인은 앞으로의 삶을 영위해 가야할 터전으로서 지키고 가꾸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다. 역사 전환의 시기에 즈음하여 지나간 자취를 재조명함과 아울러 새롭게 도래할 세기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창조적으로 역사를 준비하는 용인시민의 마땅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유구한 역사와 함께 선조들이 땀과 눈물로 가꾸고 지켜온 이 땅을 꿈과 희망이 있는 풍요로운 고장으로 발전시켜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용인 600주년 사업은 용인이 새롭게 거듭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온 시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묶는 시민 대통합의



계가 될 것으로 믿는다.

개략적인 사업 계획을 소개하면, 용인 600년 연혁비의 건립, 명예의 전당 헌정인물 선정, 무형의 정신 문화 자산의 창출, 용인 600년 기록화의 제작, 기념탑의 건립, 용인 역사관 건립, 기념공원의 조성, 타임캡슐 제작 매립, 용인의 유서 가꾸기 사업, 5대 문화사적지의 형상화 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 등이다. 이를 위해서 용인600주년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내에 기획·홍보분과, 6백년 사료 정립분과, 사적지 정비 및 문화 콘텐츠 개발 분과, 기념관 및 조형물 건립 분과, 기념공원 조성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용인시는 용인 600년 기념사업회의 사업계획에 관한 종합 마스터 플랜을 강남대학교 발전연구센터에 용역을 의뢰하

였으며, 2010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관내 대학에 지역학(용인학) 개설 지원 사업

최근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용인시에는 10여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용인에 유입된 시민들조차도 아직 용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발전과 변화 과정에 따른 도시 정체성 확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 대학에 용인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지리, 관광 등을 소개하는 용인학 강좌를 개설하여 용인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우리 고장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용인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이다.

용인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용인학을 정

립하여 지역의 개성과 정체성을 규명하고 지역발전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관내 대학생들이 용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케 함으로써 용인시의 가치 및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용인학을 통해 용인의 시정과 산업,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유도하고 대학이 지역 발전에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본 사업의 지향하는 목표이다.

2010년 현재 용인학을 개설한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교(정원 120명)와 강남대학교(정원 100명)로 용인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대학은 학사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학기당 2학점을 이수하는 일반교양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강좌 내용은 용인의 역사와 문화 소개,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 UCC제작과 문화유적 답사, 공공기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되어 있다.

한국외대의 경우 학기당 16주의 수업이고 10회 이상을 용인 관련 전문가의 특강으로 진행하는데 강사진은 자치단체장, 문화 관계자, 역사학자, 기업인, 언론인 등 지역 유력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관내 대학에 개설된 용인학 강좌를 본 문화원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에 있는 문화원이 나서서 다양한 분



한국외대 용인학 수강생들 - 용인문화유적 답사를 마치고

야에 대한 조사와 연구, 각종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학문적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각 대학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화원 내에 지역학회(용인학회)를 두고 각 대학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동의 연구와 교재개발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용인문화원에서는 경기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지역학 개설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5월중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지역학 활성화와 확대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그와 관련한 지역학회(용인학회)를 부설 용인문화연구소 내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내 대학의 용인학 개설은 경기도 최초의 지역학 강좌로 젊은 세대에게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고 다양한 자원과 그 특성을 이해시킴으로써 세계적인 선진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의 비전을 심어주고 지역발전에 동참 의지를 갖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아가 용인학 강좌를 대학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 시민 및 용인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까지 확대하여 '연구로서의 용인학'은 물론 '소통으로서의 용인학'을 구축하여 용인의 문화 페러다임을 범시민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장 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2010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종합토론회 및 권역별 세미나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전문경영조직으로의 변화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상반기 중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 종합계획안'을 확정하여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부는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 종합계획안' 마련을 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와 공동으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권역별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문화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전국 227개 지방문화원 원장, 사무국장, 직원이 참여한다.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전문경영조직으로의 변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권역별 토론회는



경기, 인천을 시작으로 4월17일까지 이어진다. 첫번째 토론회는 지난 3월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 시·군 문화원에서 90여명의 원장, 사무국장, 직원이 참여하여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시 간 | 1일차

07:30~08:30	
09:00~15:50	
10:00~10:50	
11:00~11:50	
12:00~12:50	
13:00~13:50	[개회식] 국민의례, 개회식, 격려사 등
14:00~14:50	[강의1] (통합)(100분) _ 문화트렌드 이해와 문화원의 역할
15:00~15:50	[휴식시간] 20분
16:00~16:50	지방문화원육성발전종합토론회(통합) 120분 _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7:00~17:50	_ 진행자 및 패널구성(6~7인) * 중앙정부 및 지자체공무원, 원장, 국장, 전문가
18:00~18:50	[석 식]
19:00~19:50	[분임토론] (원장, 국장, 간사) 100분
20:00~20:50	_ 원장 : 전문경영조직으로서 문화원장의 역할 _ 국장 : 사회변화와 지방문화원(문제점 중심으로)
21:00~21:50	_ 간사 : 지역 문화원 연계프로그램 기획
22:00 ~	[자유교류] (원장, 국장, 간사)



07:30~08:30

[조 찬]

09:00~15:50

[강의2] (통합) 90분

_ 지역창조와 문화전략

10:00~10:50

* 지역소재 대학교수 및 연구원 활용

11:00~11:50

[종합 발표] (통합) 90분

_ 원장, 국장, 간사 / 각 주제 발표

_ 자유토론 / 우수사례 중심으로

12:00~12:50

[폐회식] 설문조사 및 공지사항

13:00~13:50

[오 찬]

14:00~

[자유 해산]



경기유학의 탐색과 문화원의 역할

경기학의 기반, 하늘 땅 사람

조선시대 황진이가 사모하였던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계열의 소작이라 일컬어지는 것 가운데 천체(天體)를 조선팔도에 배속한 분야도(分野圖)가 있다. 여기에서 경기도는 주로 성(星)의 별자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팔괘(八卦)가운데 이궁(離宮)에 배속되어있다. 이런 그림은 천체와 지구가 어떤 원칙에 의해 일정하게 상응하는 관계라는 전통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문화적 차원에서 옛 작품으로 마음 편히 감상해볼 수 있는 일이다.

28수(宿) 가운데 성(星)은 남방에 해당하는 일곱 별인 주작(朱雀)을 구성하는 별로 각각 주작(朱雀)의 가슴이나 목에 해당되는 별이다. 팔괘 가운데 이괘(離卦)는 타오르는 불로 밝음을 상징하며 방위로는 밝은 곳인 남쪽, 시간으로는 가장 해가 높이 떠 비추는 오시(午時)에 해당한다. 주역(周易)에 의하면 옛날부터 왕들이 남쪽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남면지술(南面之術)의 정습(政習)은 바로 이괘(離卦)에서 취했다고 하였다. 지도자가 밝은 곳을 향해(南面) 천하의 실정을 들어야(聽天下) 밝은 정치를 이루는 명군(明君)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인군의 정치행위를 청정(聽政)이라

한다. 경기도는 실제 오래전부터 청정(聽政)의 본거지였다.

주작(朱雀)은 새인데, 이괘(離卦)는 주역(周易)에서 평에 해당한다고도 하였다. 춘치자명(春雉自鳴)이라 하듯이 새는 봄을 이기지 못하는 정(情)이 있고 정이 있으니 스스로 울 줄 안다. 이렇게 뜻을 품는 곳은 가슴이요 그 뜻을 뱉는 곳은 목청이니, 조선의 가슴과 목청에 해당하는 곳이 경기도인가!

예부터 중국에서 방위의 기준이 되는 중심점은 낙양(洛陽)이었다. 이 곳에서 패철을 놓으면 동북방(東北方)에 닿는 곳이 바로 백두산이다. 우리나라의 산맥은 백두산을 조종(祖宗)으로 삼으므로 예부터 우리나라를 동북(東北)의 간방(良方)이라 불렀다.

간괘(艮卦)는 산(山)을 상징한 괘로 산을 빼놓고 우리나라 지리를 말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지리를 논한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되는 고려의 도선(道詵)이나 조선조의 이중환(李重煥), 이익(李瀾), 신경준(申景濬)등의 저서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산(山)은 간(幹)과 맥(脈)을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다. 간(幹)은 말 그대로 튼실한 뼈대인데 이 뼈대에서 뻗어나간 것을 유동(流動)하는 맥(脈)으로 표현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줄기는 동쪽으로 뼈대를 이루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고 맥은 서쪽을 향해 뻗어있다. 산경표(山經表)의 분류에 의하면 대부분의 맥은 산을 따라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명명되고 있다. 이것은 자연지리가 산택통기(山澤通氣)의 역리(易理)를 기본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산택통기(山澤通氣)란 산과 못은 서로 기운을 통하고 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만물의 생명활동도 가능케 된다는 역(易)의 이론이다. 지구자체가 크게 보면 불룩한 육지(山)와 움푹 파인 바다(澤)로 이루어져 있다. 천지의 교류는 이 산과 못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기(地氣)는 해양을 통해 하늘로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천기는 비를 지어 산을 통해 내려주어 이로 인해 만물이 우로받아 성장하니 산과 바다는 천지의 성기(性器)인 셈이다. 그래서 천자문에 운동치우(雲騰致雨)란 말도 나온다.

산릉(山陵)엔 물이 공급되어야 나무에 물이 올라 살고 하택(河澤)은 산이 있어야 그 물줄기를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산과 물은 늘 병행하면서 기운을 통해 만물에 활기를 주는 활물(活物)이다. 경기도의 활기(活氣)는 지리적으로 한강과 한강 남북의 산맥에 의해 유통된다. 한강(漢江)의 흐름을 정해주는 것이 한강이북의 산맥과 한강이남의 산맥이라 할 수 있다.

인걸(人傑) 지령(地靈)이라는 말처럼 사람은 천지의 기운에 의해 그 원기(元氣)를 공급받는 존재이다. 그래서 경기도의 천지기운이 그대로 경기인들의 기상(氣象)으로 나타난다.

경기학과 유학

경기학은 위에서 언급한 경기도의 천지인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 경기학은 경기도와 관련된 것으로 문화적 연구가치가 있는 자연과 인간 및 자연과 인간이 생산한 유형무형의 것을 포괄한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학문이 경기학 연구의 대상이자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대상에 관

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정체성은 자신만의 시공간상 개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신만의 개성은 공간적으로 타자와의 관계를 전제할 때 도출 가능하다. 시간적으로도 현재적 개성파악을 위해서는 과거의 도도한 역사를 되돌아보아야 하며 그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읽어내야 한다. 그러므로 경기도의 개성을 알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하고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의 지역과 역사에 담긴 내용을 읽어낸다.

내용이란 것은 별개 아니고 사람사는 이야기이다. 사람사는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범주화해놓은 것이 학문이라면 그 학문의 범주는 인간의 속성내지 본질을 벗어나서 논의될 수 없다. 우리가 문사철이니 하는 범주 역시 세계에 인간의 심성(心性)이 투영된 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것일 따름이다. 현대에서 논의되는 학문체계란 것을 전통적 개념인 천지인(天地人)으로 범주화해볼 수 있다.

범주	마음	현대분류	구체분야
地(文·詩經)	感性	인문학3(문학) + 예술·체육	예술, 체육, 문학, 예술일반, 음악, 미술, 디자인, 의상, 사진, 미용, 연극, 영화, 체육, 무용
人(史·書經)	理性	인문학2(역사) + 사회과학 + 자연과학 + 공학 + 의약학 + 농수해양 + 복합학	역사, 사회과학(사회일반, 정치, 경제, 경영, 법학, 행정, 정책, 사회복지, 지리, 지역개발, 관광, 신문방송, 군사), 자연과학(자연과학 일반, 수학, 통계, 물리, 화학, 생물, 천문, 대기, 지구, 지질, 해양, 생활),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天(哲·易經)	靈性	인문학1(철학, 종교)	철학, 종교

이렇게 범주화한다 하더라도 감성이 없고 이성만 있는 인간이 있을까? 각 영역은 서로 얽혀있다. 한국에서 오랜 세월동안 이 세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유학이다. 유학은 때론 영성의 종교이고 때론 현실을 경영하는 정치이고 시화의 주제였다. 그러니 삶 곳곳에 파고들어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유학의 성격을 규정해보는 것은 상당부분 삶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이자 문화의 뿌리를 탐색하는 일이다.

왜, 경기유학인가?

유학이 삶과 교섭하는 가운데 유학자들은 이론적으로는 학설을 주장하고 사회적으로는 실천을 결단한다. 우리나라에 유학이 전래된 이래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조선시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유학은 영남(嶺南) 지역의 유학과 기호(畿湖) 지역의 유학으로 구분된다. 경기유학이란 바로 기호유학을 일컫는다. 영남유학의 경우 퇴계(退溪), 남명(南冥), 회재(晦齋)를 중심인물로 삼는다.

이 셋 모두 철저한 성리학 중심의 사림(士林) 유학자로 도학(道學)을 연마하였다. 이에 비해 경기유학은 성리학뿐 아니라 실학 심학 등 오롯이 학문성향의 범위가 넓다. 그러다 보니 자연 불교나 도교 등과의 교섭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진다.

어찌 보면 경기유학은 영남유학이 지니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면서도 그 영역이 훨씬 넓은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성과 풍부성을 갖추고 있는 경기유학을 탐색하는 작업은 실로 한국지성의 원천을 탐색하는 일이다.

경기유학연구와 지방문화원의 동행

경기유학의 탐색은 장기적으로 순차적 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올 해는 경기유학사업 1단계로 경기유학의 전모내지 성격 규명할 계획이다.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역별 소규모 심포지엄을 통해 연구성과를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경기유학에서의 경기는 꼭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고 학문적 연고(緣故)를 참조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강화나 인천을 포함한 기호(畿湖)권역도 경기유학의 지역적 범위에 포함된다.

다른 지역의 사업사례도 참조해보아야 한다. 충남의 경우는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유교문화권 등으로 문화권역을 나누고 있고, 경북의 경우는 2010 세계 유교문화축전을 열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을 포함하고 있는 한반도 역사 천년의 중심처이다. 각 지역의 문화가 모여들어 교류한 문화소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21세기 지방자치가 본격화하고 있는 시기에 경기도가 서울의 주변부라는 인식을 넘어 제 위상을 잡고 다져 나갈 필요가 있다. 경기유학사업은 경기도가 지니고 있는 개성의 학문적 근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경기도가 자기의 위상을 정립하고 세계적 문화소통의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주변에 경기유학을 포함한 경기학의 연구와 활용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어찌면 경기유학은 어느 한 연구실의 일이 아니며 경기의 공통적 숙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기도가 경기문화의 학문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세계적 문화소통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 문화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도가 국제문화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필수적 전제가 각 지역의 거점인데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지역문화의 일선에 있는 문화원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문화원이 경기유학을 공통의 관심사로 공감된다면 해당 분야에 대해 자연스

럽게 호흡을 같이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경기유학자는 경기지역에서 출생을 하였거나 일정기간 거처를 했을 수도 있고, 경기지역에 문혔을 수도 있으며,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지역별로 어느 유학자의 연고(緣故)에 관한 각종 기록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도 지방문화원의 관심을 꼭 필요로 한다. 각 문화원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는 거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지역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데 어느 정도는 공통된 목적과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정리해준다면 각 시군상호간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서로 호흡을 같이하면 좋을 것이다. 각 지역의 경기문화의 최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지방문화원의 활기를 기대해본다.



최 정 준 | 철학박사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실 연구원



통계로 보는 경기도 문화원



경기도지회는 지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의 활동과 현황을 정리한 '2009 경기도문화원을 만나다'를 발간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문화원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대외적 홍보뿐만 아니라 문화원간 보다 정확한 정보 교류를 통해 시·군 문화원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활용되기를 바라며 조사를 통해 드러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원 운영에 핵심이 되는 사무국 직원의 현황을 보면, 31개 시·군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의 수는 총 119명으로 이를 1개 문화원 당 평균 으로 환산하면 3.7명이 된다. 직원이 2명인 문화원 8개원으로 25.8%, 3명~4명인 문화원은 15개원으로 48%, 5명~9명인 문화원은 8개원으로 25.8%의 비율로 나타났다.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문화시설 및 기관(문화의집, 공연장,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을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향토사업을 전문하는 학예사(연구원)를 직원으로 채용한 문화원은 6개원으로 19.3%의 비율을 나타냈는데, 특히 평택 문화원에는 2명의 학예연구사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문화원의 핵심 사업인 향토문화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시·군 문화원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시·군 문화원 직원 현황

직원수	시·군 문화원	계
2명	가평, 광주, 김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여주, 오산	8개원
3명~4명	고양, 구리, 군포, 성남, 안성, 안양, 양평, 연천,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포천, 하남, 화성	15개원 8개원
5명~9명	과천, 광명,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용인, 평택	6개원
학예사	고양, 광명, 안산, 연천, 평택, 포천	



문화원 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원사 현황의 경우, 단독원사(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기관 포함)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원은 16개원이고, 문예회관, 시민회관, 군민회관의 일부 사용하고 있는 문화원은 15개원으로 나타났다. 광명문화원의 경우 문화원사 내에 전문공연인 하안극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고양·과천문화원은 원사를 신축 중에 있다.

문화원 활동의 제도적, 경제적 근거가 되는 조례와 기금 보유 현황을 보면, 12개 시·군에 문화원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 31개 문화원 중 16개원은 자체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조례 제정 내용은 주로 문화원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것이고, 단독원사를 자치단체로부터 제공 받은 경우 '문화원사 설치' 조례가, 기금에 관련된 경우에는 '문화원 지원 육성기금 설치' 조례가 있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시·군 문화원 원사 현황

원사구분	시·군 문화원	계
단독원사	광명, 구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연천, 용인, 의왕 의정부, 포천, 하남, 화성	16개원
문예회관	가평, 고양, 광주, 군포, 안성, 오산, 평택	7개원
시민회관 (군민회관)	과천, 김포, 남양주, 동두천, 양평, 여주, 이천, 파주	8개원



경기도 시·군 문화원 조례 제정 및 기금 보유 현황

	시·군 문화원	계
조례	광명,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파주, 포천 화성	12개원
기금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의왕, 이천 파주, 평택, 화성	16개원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문화원, 제22회 율곡문화제
후원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파주경찰서, 파주예총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 왔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점차 문화원으로 이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과천문화원, 시흥문화원은 2010년부터 문화관광해설사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포함할 경우 10개 문화원에서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관광은 지역의 향토사와 떨어져 생각할 수 없으므로 문화원이 그동안 축적한 향토 사업과 접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관리할 경우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향후 문화원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시·군 문화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

	시·군 문화원	계
문화관광해설사운영	과천, 부천, 성남, 시흥, 안양, 용인,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10개원

2009년 5월 기준 경기도 각 시·군이 개최하는 축제는 모두 115개로 전국 축제(921개)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 내 지역축제 수는 2006년 152개에서 2008년 141개, 2009년 115개로 감소추세에 있다. 매년 시·군 단위 지역축제는 새로이 생기거나 폐지 또는 통합되는 등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10개 문화원에서 15개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축제의 유형도 문화예술 축제부터 관광특산축제까지 다양하다.

경기도 시·군별 문화원 주최 지역축제 현황


시·군	시·군	최초개최	개최시기	축제종류
광명	오리문화제	1992년	5월	문화예술
남양주	다산문화제	1986년	9월	전통민속
동두천	소요산단풍제	1985년	10월	문화예술
안산	성호문화제	1996년	5월	문화예술
여주	세종문화큰잔치	1962년	10월	문화예술
용인	포은문화제	2003년	5월	문화예술
	용구문화예술제	1986년	10월	문화예술
의정부	회룡문화제	1986년	10월	문화예술
파주	임진강민속축제	2001년	음력1월	전통민속
	울곡문화제	1987년	10월	전통민속
	해남이축제	2005년	12월	전통민속
평택	소사별단오축제	1973년	음력5월	전통민속
화성	정조효행문화제	2002년	5월	문화예술
	화성포구축제	2005년	6월	관광특산
	떡전거리축제	2007년	10월	관광특산



정월대보름

_ 소원성취, 만사형통을 기원

1

- 
1. 대보름 풍년기원제 및 달맞이행사
(이천문화원)
2~3. 제22회 대보름민속들이한마당
(수원문화원)

달집태우기, 부럼깨물기
 민속놀이와 의례로 상징되는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은 우리 민족의 밝음사상을 반영한 명절이다



새로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시흥문화원

정월대보름

한마당

큰잔치

시흥문화원

‘판교쌍용거줄다리기’

성남문화원이 1980년에 복원·재현해,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로 중단됐다가 2009년 보존회를 재정비시켜, 여주군 점동면 삼합리에서 벋짚을 마련하고, 판교 원주민 20명이 동아 줄을 꼬아, 한국농악보존협회 성남 시지회와 성남농협 주부농악단과 판교동 입주자 등 300여명이 흥겹게 시민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시연하였다.



5~7 성남시 정월 대보름 축제
(성남문화원)

동두천문화원...

'2010 시민안녕기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500여 문화가족과 유관기관 사회단체장과 일반시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8

8~9 시민안녕기원 정월대보름 달맞이
(동두천문화원)

10~11 제8회 정월대보름놀이
(고양문화원)



9



10



11

제8회 정월대보름놀이

• 일시 : 2010년2월28일(일) 오후4시~8시 • 장소 : 지방마을 • 주최 : 고양문화원



12

오산문화원.....

잊혀져가는 세시풍속을 재현. 계승하고 청소년들에게 추억과 희망을 심어 주는 물론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화합 분위기조성을 위해 대보름행사가 생태하천인 오산천변에서 시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름달을 바라보며 올 한해 평안과 가정의 건강을 기원했다.



13



14

12 "소원을 말해봐!" 정월대보름 (오산문화원)
13~14 대보름 풍년기원제 및 달맞이 (이천문화원)

안성문화원...

1919년 4월1일 2천여명의 안성 농민들이 봉기해 관내에 있던 일본군을 축출하고 2일간의 해방과 자유를 누렸던 일을 기념하는 '2일간의 해방'을 진행했다



15



16

15~16 안성 4.1만세항쟁기념식
(안성문화원)
17~18 3.1절 기념 횃불행진
(남양주문화원)



17



18



안양문화원....

안양문화원과 (사)민족정기선양회는 3.1절을 맞아 일제가 박아놓은 쇠말뚝 (혈침)을 제거하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정안기원제'를 개최하였다

19 제91주년 3.1절 기념식 (화성문화원)
 20~21 3.1절 기념 '정안기원제' (안양문화원)



이천 백사면 산수유 꽃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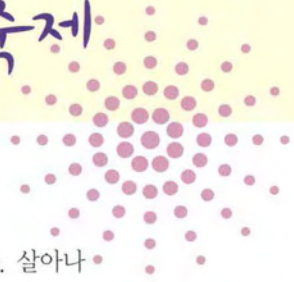
누구나 봄을 맞이하는 기쁨이 큰 것은 그 싱그러움 때문일 것이다. 살아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에 덩달아 우리의 마음도 무언가 새로움이 용솨음친다. 봄바람과 함께 앙상한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모습은 마치 잎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런가하면 잎이 나기도 전에 먼저 터진 꽃망울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가 된다.

봄이 온 것이 기쁘기 때문일까.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봄을 즐기고 있는 듯 상기된 표정들이다. 거리는 온통 파스텔 꽃빛으로 취해 있고, 한가로운 들판에 쭉 향은 현기증이 날 정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생명잉태의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산수유이다. 언젠가부터 아파트 화단에도 산수유가 심겨지고 다른 꽃들 보다 제일 먼저 부지런을 띤다. 산수유는 이른 봄에 피는 생강나무와 비슷하게 생겨서 혼돈하기 쉬운데 향긋한 생강나무와는 달리 특별한 향기가 없는 청초한 꽃이다.

요즘 봄꽃을 소재로 한 축제가 한창이다. 개화시기가 이른 만큼 제일 빠른 봄꽃축제가 아마도 산수유 축제가 아닐까 한다. 농촌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라 전국 여러 곳에서 산수유를 소재로 하는 축제가 한창이지만, 서울에서 1시간 남짓 거리에서도 노란색 산수유 꽃 축제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이천시 백사면 산수유 꽃 축제이다.

이천 백사골 산수유 꽃 축제

이천 백사면은 수령이 100년이 넘는 산수유가 자생군락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백사면 원적산 기슭의 농가에서 산수유를 많이 재배해 오고 있다. 매년 3월-4월이면 산수유 꽃이 만발하고, 10월에는 붉은 산수유 열매가 그 윤기를 발하여 이 아름다운 정경을 화폭에 담으려는 화가는 물론,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올해 제11회째를 맞이한 백사면 산수유 꽃 축제는 제6회 때부터 백사면 주민이 중심이 되어 행사를 치르고 있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 관광 자원으로 정착시켜 왔다. 또한 이천 도예촌, 이천온천, 반룡송, 백송, 육괴정 등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 벨트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문화와 친환경 도시라는 이천의 이미지를 알리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행사장에는 옛 시골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람들을 유혹한다. 돌담 사이로 산책하기와 전통놀이, 자연관찰, 시골장터, 추억의 엽서보내기, 두부 만들기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축제를 찾아간 관광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제공한다. 또 동네 어귀마다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간판을 걸고 잔치국수며 동동주, 파전을 파는 모습들이 시골동네의 친근감을 더해 준다. 특히 산수유 꽃 축제에서 마음을 빼앗기는 곳이 바로 아기자기 쌓인 돌담길이다. 돌담길

은 반듯한 길이 아니라 돌아돌아 구불구불하며 가는 시골길이다. 어찌나 정겹던지 돌담을 돌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을 빼앗겼으리란 생각이 든다. 황금빛 산수유 꽃 사이로 드문드문 피어난 매화향기가 텅빈 낡은 집을 지키고, 돌담 사이에 조용히 앉은 현호색과 제비꽃이 예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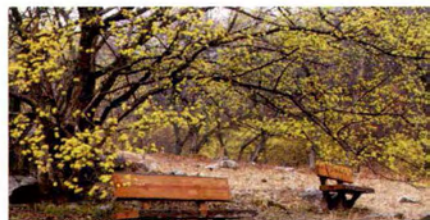
축제속에 찾은 보물섬

돌담 너머로 아름답디 산수유 꽃을 즐기다 보니 전통 건물이 나온다. 이곳은 조선 중종 14년(1519) 기묘사화 때 난을 피해 낙향한 낭당 엄용순이 건립했다는 <육괴정>이라는 정자다. 육괴정이란 이름은 당대의 선비 여섯 사람이 연못 주변에 느티나무 한그루씩 심었다는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심어진 산수유나무가 현재의 모습으로 균락을 이루고 있다. 지금은 나이든 느티나무 세 그루가 군데군데 서있고, 그때의 연못은 매위



지고 새로 조성된 연못이 있다. 축제를 통해 역사를 되살리며 선조의 정신을 기리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신선하게 느껴진다.

더욱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는 건 황금빛 꽃나무 아래서 캔버스를 놓고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이었다. 자연을 만끽하면서 그림에 심취해 있는 아이들의 눈빛이 얼마나 맑고 예쁘던지 그 모습이 한 폭의 그림이고 작품이다.



산수유나무의 유래

산수유 꽃은 공해에 약하지만 내한성 강하고 이식력이 좋다. 진달래나 개나리, 벚꽃보다 먼저 개화하는 봄의 전령사인 산수유나무는 시원한 느낌을 주는 수형과 아름다운 열매로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 큰 그늘을 만들어 여름철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산수유나무는 특히 이른 봄에 개화하는 화사한 황금색의 꽃이 매우 인상적이다. 산수유의 본래 이름은 '오유'였으며, 지금도 중국의 많은 한의원들은 이같이 부르고 있다. 또한 '오수유'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는 1천5백 년 전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오나라가 산수유나무를 특산 식물로 재현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수유나무는 1970년 광릉지역에서 자생지가 발견된 바 있어 자생종으로 밝혀졌고, 산수유나무는 특히 토심이 깊고 비옥한 곳에서 잘 성장하고 햇볕을 좋아하나 음지에서도 개화하고 열매를 맺는다.

산수유의 설화는 신라시대 때에 48대 경문왕이 임금 자리에 오르자 왕의 귀가 갑자기 길어져서 나귀의 귀와



같이하자 경문왕은 이 비밀을 지키고자 귀를 덮는 왕의 모자를 만들어 쓰고 정사를 돌보았는데, 이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던 복두 만드는 기술자가 죽기 전에 도립사의 대나무 숲 속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외치고 죽게 되자 바람이 불 때 마다 대나무 밑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들려와 경문왕이 그 소리가 싫어서 대나무를 베어내고 산수유를 심었다는 설화가 있다.

축제의 고장 이천

백사면 산수유 꽃 축제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인정받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새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 다양성과 신선함에 필자는 이천 지역의 축제에 대해 정리를 해봤다.

매년 9~10월 경 개최되는 이천 도자기 축제는 행사의 규모와 운영면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 500여 문화관광 축제 가운데 문화관광부에서도 중요 축제로 선정되었다. 이천 도자기축제는 이천 시민들의 화합의 장이며, 관광객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체험관광으로 매년 국내,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어 환상적이고 역동적인 축제의 한 마당이 펼쳐진다.

장호원 복숭아 축제는 4월 초순경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복숭아 과수재배 농업인 및 지역사회 단체에서 시작한 작은 축제이다. 그러나 화려한 복사꽃 밭을 배경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하나의 독립된 지역축제로 매년 9월 출하 시기에 맞추어 개최함으로써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이천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며 상징인 이천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쌀문화 축제는 매년 수확기에 개최된 축제로서 2001년부터 추수 현장인 논배미에서 자치기, 달집태우기, 명석만들기, 새끼꼬기, 짚신삼기, 용구쇠틀기 등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축제에서는 햅쌀광장과 햅쌀문화가, 햅쌀식당가, 짚풀문화마당, 햅쌀장터, 햅쌀거리등 테마마당이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이천의 진산인 설봉산의 이름을 붙여 시작된 설봉문화제는 이천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향토문화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매년 10월에 여는 축제이다. 이 행사기간에는 문예백일장, 미술 및 휘호대회 작품전, 음악제, 및 봉화제, 풍물놀이 등 종합예술이 이천시 전역에서 다채롭게 열린다.

이천이란 작은 도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유명 축제가 계절별로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축제에 참여해본 사람들은 이천을 도자기의 고장이라고만 부르지 않는다. 복숭아, 임금님 이천 쌀, 산수유 등 다양한 수식으로 장식하게 된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이천이 부럽기만 하다. 가을축제가 10월이라면 봄축제의 달은 5월이다. 사람들은 맘에 드는 축제를 고르느라 바빠질 것이다. 각 지역마다 펼쳐지는 축제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미 관광객들은 전문가의 눈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축제의 테마를 몸소 체험하며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축제의 현장을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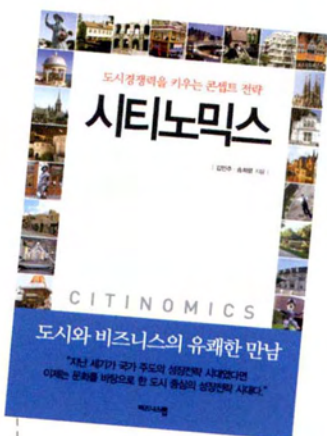
조 명 속

-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 숲해설가



사소하지만 기발한 발상을 현실화시킬 때 중소도시는 강소도시로

성장한다!



캐나다의 소도시 스트랫퍼드가 어떻게 '셰익스피어페스티벌'로 유명해졌을까? 셰익스피어가 실제로 태어난 곳은 잉글랜드의 도시인 스트랫퍼드인 있는 도시인데도 말이다.



이 성공은 아주 작지만 기발한 발상을 현실화시켰기 때문이다. 무너져가는 도시에 동명의 이름을 이용해 세계적 연극축제로 발돋움시켜 도시 자체의 부를 축적시켰다. 이렇듯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도 시티노믹스를 추구해야만 한다. 시티노믹스는

'city+economics'의 합성어로 국가 간 장벽이 없어지면서 풍부한 상상력·문화·친환경 등으로 평가된 도시경쟁력을 강조하는 신개념의 도시 경제학이다.

저자들은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경제·문화·예술성 등을 고루 구비한 도시만이 살아남는다고 주장한다.

최근 일본의 몇몇 도시들의 재정 파산 선포와 부산 남구의 재정 파탄 현실에 시티노믹스는 해답이 될 수 있다.

또한 저자들은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 시대라고 주장하면서, 특정 콘셉트를 가지고 지역이 활성화된 더블린, 바르셀로나, 스트랫퍼드, 두브로브니크, 어바인, 드레스덴 등 세계 강소도시 25곳과 그곳의 성공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자연,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정보는 물론, 중소도시에서 세계적 수준의





강소도시로 도약하기까지의 미술과 건축, 공연과 축제, 휴양과 기업, 그리고 문학 등에 걸친 노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한국의 전체적 위상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올 한국 중소도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프랑스의 아를, 네덜란드의 라이덴 등을 예로 들면서, 시티노믹스는 아주 많은 투자 없이도 새로운 콘셉 하나만으로도 수익 극대화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한다. 이른바 도시도 기업처럼 선택과 집중 즉, 포지셔닝을 하자는 의미다. 차별화된 브랜드, 스토리를 지닌 제품, 마케팅 등은 더이상 기업에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책에서는 강소도시들을 문학, 미술·건축, 공연·축제, 휴양, 기업, 역사·문화의 6가지 테마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저자 김민주는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사인 (주)리드앤리더 대표이며 사례분석 사이트 이마스(emars.co.kr)의 대표 운영자이다.

서울대와 시카고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한국은행, SK그룹, SK에너지 등에서 근무했고 유달리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건국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를 거쳐 문화관광 전문가들의 모임인 '참사랑문화관광포럼'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저서로 '하인리히 법칙' '2010 트렌드 키워드' '세상을 소비하는 인간, 호모 콘수무스' '로하스 경제학' '커피 경제학' 등이 있다. 공동 저자인 송희령씨는 이화여대 불문과와 한국외대 동시통역대학원 영불과를 졸업했고 10년간 경제 관련 회의에서 동시 통역사와 번역사로 일했다. 현재 캐나다에서 통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지회

경기도 시·군 문화원장 순회간담회

- 일 시 : 2010. 4. 26(월) 11:00
- 장 소 : 성남문화원

경기 문화상징 개발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10. 6. 4(금), 5(토), 13(일), 20(일), 27(일)
- 장 소 : 포천, 부천, 김포, 의왕, 이천
- 행사내용
 - 경기도 10개 문화원 사례발표
 - 관련 학자 논평 및 종합토론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악프로젝트 순회공연 '2010 짱! 짱이야 국악소리'



- 일 시 : 2010. 6. 4(금), 5(토), 13(일), 20(일), 27(일)
- 장 소 : 포천, 김포, 부천, 의왕, 이천
- 행사내용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전통예술공연 체험

가평문화원

제8회 문화예술단 발표회

- 일 시 : 2010. 5(어버이날주간)
- 장 소 : 가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행사내용



- 한국무용, 경기민요 발표회
- 관내 어르신을 위한 어버이날 공연 행사

고양문화원

10회 성년의례



- 일 시 : 2010. 5. 15(토)
- 장 소 : 덕양구청 대회의실
- 행사내용
 - 관내 1989년, 1990년생 남, 여 각 50명

광명문화원

제19회 오리문화제

- 일 시 : 2010. 5. 7(금) ~ 9(일)
- 장 소 : 광명실내체육관 일대, 충현서원지
- 행사내용
 - 오리이원익영정참배, 어린이이원익선발대회, 시민문화

문화원 캘린더

Calendar



동아리 한마당, 전통다례시연, 오리청백리상 시상

토요상설 야외음악회

- 일 시 : 2010. 6. ~ 11. 매주 토요일
- 장 소 : 광명시 4개 권역
(광명권, 하안권, 철산권, 소하권)
- 행사내용
 - 시민문화동아리(기타, 하모니카, 해금, 요들송 등) 공연

구리문화원

갈매동 도당굿



- 일 시 : 2010. 4. 15(목) ~ 16(금)
- 장 소 : 갈매동
- 행사내용
 - 경기도 무형문화재 15호 갈매동 도당굿

제20회 구리시민백일장

- 일 시 : 2010. 5. 19(수, 예정)
- 장 소 : 동구릉
- 행사내용
 - 글쓰기, 그리기, 사진, 비디오, 서예
 - 관내 초·중·고교학생 및 구리 시민

김포문화원

제25회 5월 문화행사

- 일 시 : 2010. 6월 중(예정)
- 장 소 :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 행사내용
 - 사생대회, 백일장대회, 휘호대회, 사진촬영대회
 - 관내 유치부, 초·중·고등부 학생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악프로젝트 순회공연 '2010 짱! 짱이야 국악소리'

- 일 시 : 2010. 6. 13(일) 16:00
- 장 소 : 김포시 여성회관
- 행사내용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전통예술공연 체험

남양주문화원

천마산산신제

- 일 시 : 2010. 4. 16(금)
- 장 소 : 화도읍 천마산
- 행사내용
 - 남양주시의 번영과 시민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음력 3월3일(삼짇날)에 민속 산신제 거행

관내능기신제

- 일 시 : 2010. 4. 26(월)
- 장 소 : 유릉(순종효황제)
- 행사내용
 - 순종효황제를 모신 유릉에서 능(陵) 기신제 봉행 행사

동두천문화원

전통성년례

- 일 시 : 2010. 5. 15(토)
- 장 소 : 시민회관 공연장
- 행사내용
 - 만19세, 20세 남·녀를 대상으로 전통성년례 의식

제22회 청소년백일장



- 일 시 : 2010. 5. 25(화, 예정)
- 장 소 : 소요산 야외음악당
- 행사내용
 - 관내 초중고생 문학부문 백일장

부천문화원

제26회 복사골예술제

- 일 시 : 2010. 5. 1(토) ~ 5. 5(수)
- 장 소 : 부천시 일원

- 행사내용
 - 문화나눔콘서트, 체험프로그램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악프로젝트 순회공연 '2010 짱! 짱이야 국악소리'

- 일 시 : 2010. 6. 5(토) 17:00
- 장 소 : 부천시청 대강당
- 행사내용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전통예술공연 체험

성남문화원

제5회 둔촌 한시·시조시 백일장

- 일 시 : 2010. 5. 8(토) 10:00
- 장 소 : 중원청소년수련관
- 행사내용
 - 한시백일장(전국대회)
 - 청소년백일장(성남,광주,하남 중·고생)

수원문화원

문미회 열다섯번째 정기전

- 일 시 : 2010. 4. 6(화) ~ 4. 12(월)
- 장 소 : 수원미술전시관 제1전시실
- 행사내용
 - 수원문화원 미술반(문미회) 정기 전시회

시흥문화원

국군장병과 함께하는 전통성년의례

- 일 시 : 2010. 5. 17(월)

문화원 캘린더

Calendar

- 장 소 : 시흥시청소년수련관
- 행사내용
 - 만19세, 20세 군인을 대상으로 전통성년례 의식

단오제

- 일 시 : 2010. 6. 12(토)
- 장 소 : 능곡도서관 공원
- 행사내용
 - 전통예술공연, 민속놀이 체험 등



- 풍물 및 단오 대동제 및 동대항 전통민속놀이 경연 대회
- 씨름, 그네뛰기, 줄다리기, 제기차기, 새끼꼬기, 체험 행사

안산문화원

제15회 성호문화제

- 일 시 : 2010. 5.22(토)~5.23(일)
- 장 소 : 성호공원, 이익선생사당
- 행사내용
 - 송모제, 성호사상학술대회, 전통예술공연, 전통문화 체험
 - 청소년행사 : 성호글짓기백일장, 성호사생대회

여주문화원

세종대왕 탄신 613돌 기념 송모제전



- 일 시 : 2010. 5. 15(토)
- 장 소 : 능서면 왕대리 영릉
- 행사내용
 - 다례제, 궁중무용, 궁중악, 도예전, 사진전, 시화전

안성문화원

비봉산 도당 산신제

- 일 시 : 2010. 4. 17(토)
- 장 소 : 비봉산
- 행사내용
 - 비봉산에서 국태안민의 제를 올리는 전통 의식

안양문화원

제29회 안양단오제 행사안내

- 일 시 : 2010. 5. 28(목) 10:00~
- 장 소 : 평촌중앙공원 다목적운동장
- 행사내용

용인문화원

포은문화제



- 일 시 : 2010. 6. 4(금)~6(일)
- 장 소 : 정몽주선생 묘역 행사장
- 행사내용
 - 천장행렬 재현, 무대공연, 국제학술대회, 체험프로그램
 - 한시대회, 학생백일장, 총렬서원, 향사시연

의왕문화원

제11회 의왕단오축제

- 일 시 : 2010. 6.12(토)
- 장 소 : 고천체육공원
- 행사내용



- 전통씨름대회, 팔씨름대회, 그네뛰기대회, 단오아름마선발대회
- 전통문화공연, 민속놀이체험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악프로젝트 순회공연 '2010 짱! 짱이야 국악소리'

- 일 시 : 2010. 6. 20(일) 17:00
- 장 소 : 의왕문화원 3층 강당
- 행사내용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전통예술공연 체험

이천문화원

제24회 이천도자기축제

- 일 시 : 2010. 4. 24(토) ~ 2010. 5. 16(일)
- 장 소 : 설봉공원
- 행사내용
 - 상설공연 운영, 도자기와 야생화 전시회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악프로젝트 순회공연 '2010 짱! 짱이야 국악소리'

- 일 시 : 2010. 6. 27(일) 17:00
- 장 소 : 이천시민회관 대강당
- 행사내용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전통예술공연 체험

평택문화원

소사별단오제

- 일 시 : 2010. 6. 16(수)
- 장 소 : 청북면 서부운동장
- 행사내용

문화원 캘린더

Calendar

- 평택농악, 민속놀이 경연, 궁도 경연
- 단오음식 시식, 창포머리감기, 떡메치기, 민속놀이 체험

- 장 소 : 하남문화원
- 행사내용
 - 하남시 거주 초등학교생 150명

포천문화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악프로젝트 순회공연

'2010 짱! 짱이야 국악소리'

- 일 시 : 2010. 6. 4(금) 16:00
- 장 소 : 반월 아트홀 소공연장
- 행사내용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전통예술공연 체험



하남문화원

제1회 하남단오제

- 일 시 : 2010. 6. 12(토)
- 장 소 : 하남시 일원
- 행사내용
 - 전통문화공연, 민속놀이체험



제14회 어린이바둑대회

- 일 시 : 2010. 6월 중

경기도 시·군 문화원 연락처

문화원	원 장	전 화	FAX	우편번호	주 소
도지회	오용원	031-239-1020	031-239-3785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경기문화재단 내)
가 평	조정현	031-582-2016	031-582-8667	477-80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337(문예회관내)
고 양	한학수	031-963-0600	031-969-2776	412-0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고양시청 내)
과 천	최종수	02-504-6513	02-507-1422	427-802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45
광 명	안병식	02-2618-5800	02-898-0900	423-062	경기도 광명시 하안2동 산22
광 주	이상복	031-764-0686	031-761-0315	464-801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산 9-8
구 리	김문경	031-557-6383	031-553-3993	471-829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6-36
군 포	송윤석	031-397-0195	031-397-0196	435-818	경기도 군포시 당동 871-1(군포문화센터 내)
김 포	강보희	031-982-1110	031-983-1110	415-801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59-4(시민회관 내)
남양주	이창수	031-592-0667	031-592-0668	472-010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754-2 2층
동두천	안민규	031-865-2923	031-863-1020	483-120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21 (시민회관 내)
부 천	박형재	032-651-3739	032-656-9200	422-81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387-5 (문화의집)
성 남	한춘섭	031-756-1082	031-756-1056	461-16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6926
수 원	유병헌	031-244-2161	031-244-2164	442-08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산 2-1 (시민회관내)
시 흥	정상중	031-317-0827	031-317-0828	429-252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75-1 조은프라자 4층
안 산	김봉식	031-415-0041	031-415-0043	426-89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새1동 1586-1번지
안 성	김태원	031-673-2625	031-672-6815	456-872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238-1(문예회관내)
안 양	장석재	031-449-4451	031-442-0230	430-01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 472-9
양 주	박성복	031-836-6467	031-837-6467	482-841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726
양 평	장재찬	031-771-3866	031-772-2511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10-1(군민회관 내)
여 주	이난우	031-883-3450	031-883-3200	469-806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흥문리 74-2 (군민회관 내)
연 천	공 석	031-834-2350	031-834-2015	486-802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현가리 71-1
오 산	오근택	031-375-7755	031-375-7959	447-010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강변로 365(문예회관 2층)
용 인	이종민	031-324-9600	031-324-9634	449-92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문화예술원 3층)
의 왕	이종훈	031-456-4994	031-452-2174	437-070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413-1
의정부	조수기	031-872-5678	031-853-0433	480-072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93
이 천	이상구	031-635-2316	031-637-7486	467-804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105-3(시민회관 3층)
파 주	민태승	031-941-2425	031-941-2511	413-020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산 31 (시민회관 2층)
평 택	오용원	031-655-2002	031-654-8807	450-810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47 (남부문예회관 3층)
포 천	이만구	031-532-5055	031-536-1020	487-803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148
하 남	양인석	031-795-1020	031-795-1065	465-011	경기도 하남시 덕풍1동 426-10
화 성	기봉서	031-353-6330	031-353-6331	445-926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행정리 287-1

The 2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2010년 5월 25일~28일



- **대회일정** 2010년 5월 25일~28일
- **대회장소** 코엑스, 서울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협력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참가자** 193개국 국내외 문화예술교육관계자 2,000여 명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24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511호
이메일: 2010artsedu@korea.kr
홈페이지: www.artsedu2010.kr

Ed U
Co n f e r e n c e
Ar t s E d u c a t i o n
Ar t s E d u c a t i o n
Ar t s E d u c a t i o n